

스물 세 번째 서신 (2016. 06)

사 . 품 . 향

(사 명 을 품 은 향 해 자)

전재범, 양성금(하연, 하린) 선교사

배경사진 : 공동 펌프에 물 길러 나온 아이들



* 연 락 처

E-MAIL: you8291@hanmail.net

인터넷전화: 070-4623-3285

현지전화: +221 77-438- 2749

* 후원가상 개인계좌(GMP)

외환은행/한국해외선교회

303-04-00001-692



때를 놓치지 않도록...

지난 달 이곳에 파견되어 언어를 배우고 있던 한 코이카 인턴자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유인즉, 저희가 소개시켜준 언어선생님이 연락이 안 되어 확인해 보니 그에게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낯선 남자(지인)가 전화를 받아 이스마엘라 선생님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세네갈에 와서 이들의 문화를 배우며 또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또 그의 가족과 함께 하며 낯선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위로 받으며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지내던 분이었고, 그리고 그는 저희가 복음으로 품은 자로서 몇 해 전 그의 무슬림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함께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자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의 소식에 저와 아내는 슬픔과 더불어 정말 당혹스럽고 머리에 무엇을 맞은 것 마냥 머리가 멍해져 왔습니다. 무엇이랴 말해야 하나요... 그 동안 그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또한 그에게 복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좀 더 그에게 복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돕지 못하고 또 만날 날이 있으니 천천히 다가가도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서 그의 영혼을 더 민감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맡겨주신 영혼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이 저희 가운데 무겁게 남아 얼마 간을 힘든 마음으로 보내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저희들은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 앞에서 게으르지 않으며, 복음이 최우선의 삶의 가치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면서 그 동안 저희들이 관계를 맺고 품고 있는 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 순간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때에 늘 깨어있어서 그분의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Dakar University 그룹기도모임)

어느덧 다카 대학에서 매주 기도 모임을 시작한지도 꽤 된 것 같습니다. 이젠 모임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서로의 고민들과 기도제목에 대한 나눔도 깊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본국사역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마지막 모임 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의 질문이 썩똥 맞긴 했지만 제가 그 동안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던져 보았던 질문이었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있기에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역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통해 일해 가실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그날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소망되어지기 때문이지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입술을 담대히 열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

지난 달 이스마엘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얻은 교훈을 따라 이번 본국사역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4년 동안 세네갈에서 만나고 교제하던 무슬림 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대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밥 파이에게 가기 전 복음을 전해야 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어 조금은 조급한 마음으로 그에게 계속 찾아가 여러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만남을 가로막아 보지 못하고, 얼굴이라도 보게 되는 날이면 삶에 지쳐 있는 그로 인해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복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기도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는 팜 파이에게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제가 복음 전하기 위해 한 마디를 시작하면 두 마디의 말로 코란을 빗대며 변론을 하며 저에게 대답해 왔습니다. 많은 변론이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고 대화가 계속 이어질수록 그는 변론을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고 저에게 눈을 맞추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시간 전하는 저나 복음을 들은 그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사.품.항 가족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한 텀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의 기도로 함께 해 주시고 귀한 물질로 함께 해 주신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곧 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하연이와 하린이는 올초부터 날을 세며 한국 방문을 기다려왔습니다. 짧지 않은 이곳에서의 시간이라 아이들이 다시 낯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보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만날 가족과 친구를 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품.항을 위한 노래제목...

1.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다카 대학생들이 제가 없는 시간 동안에도 은혜가운데 거하고 믿음이 성숙되어 지도록.
2. 복음을 들은 밥 파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3. 6월 한국 방문을 통해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2기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4. 한국에서 진행하게 될 본국 사역과 만남들 그리고 여러 치료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으로 가족 모두가 충분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5. 함께 하는 교회들과 동역자 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땅을 품고 함께 할 동역자들을 더해 주시도록.